

BIFAN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부천에서 즐기는
아시아 각국의 최고 흥행작

INTERVIEW <68 길> 트렌트 하가 감독
PEOPLE <옛 스테이크> 크리스토 다마르 알람 감독 | <누명> 아르파드 소프시츠 감독

수업으로 희망이 시작되는 곳

SCH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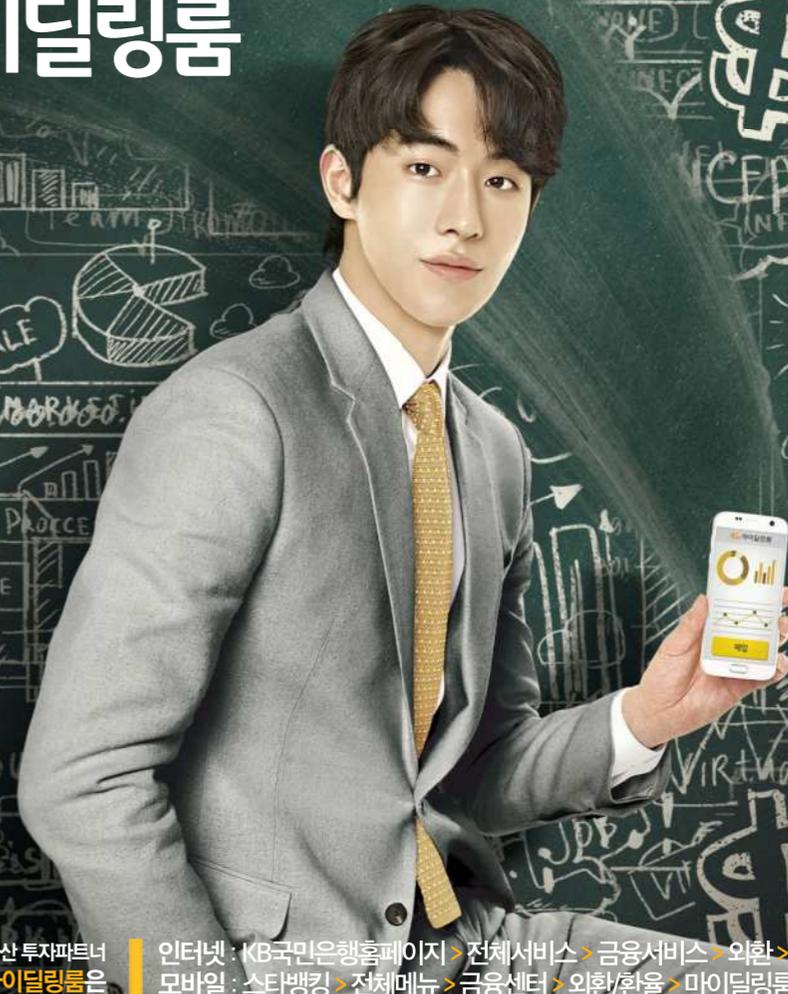
진료예약 : 1899-5700(콜센터)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KB금융그룹

외화투자의
가장 쉬운 공식은?

YES!
KB마이딜링룸



KB국민은행 홈페이지 또는
KB스타뱅킹에서
KB마이딜링룸을 검색해보세요!
(자세한 경로는 하단 참조)

간편하고 똑똑한 외화자산 투자파트너
KB마이딜링룸

인터넷 : KB국민은행홈페이지 > 전체서비스 > 금융서비스 > 외환 > 마이딜링룸
모바일 : 스타뱅킹 > 전체메뉴 > 금융센터 > 외환/환율 > 마이딜링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 외화자산 투자파트너 KB마이딜링룸이란?

투자 가능한 외화상품을 한 눈에!
실시간 외환시장을 생동감 있게! 나의 외화자산 현황까지!

KB마이딜링룸의 대표서비스 KB환율픽(PICK)?

인터넷/모바일을 통해 내가 원하는 환율로 외화를 PICK!
(예약)매매 주문하고, 거래가 체결되면 실시간 SMS 통지해주는
외화매매(시장가/지정가) 서비스

* 통장카드) 매매 양도는 불합입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금융사기 예방! 대포통장 근절이 최선입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청구직원 또는 스마트고객상담부(☎1588-9999)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06호(2017.4.17) / 관리번호 : K2017-028 / 게시기한 : 2018.4.18까지

KB 국민은행

EVENT

10:00
VR 체험존
부천시의회 갤러리

11:00
전시 '전도연, 17개의 우주'
부천시청 어울마당 입구

13:00
판타스틱 마케팅펀딩 (B.I.G)
판타스틱큐브

13:00
유비무FAN - 멘토스쿨프로젝트 (B.I.G)
부천콘텐츠센터
판타스틱큐브

표지사진 백중현

STAFF

발행인 배경록 김충환
제작총괄 장인숙
편집장 주성철
취재팀장 이화정
취재 김성훈 김현수 임수연
객원기자 광민해
사진 백중현
사진객원 박종덕
디자인 김윤희 신은지
제작 이준용
인쇄 (주)성전기획
부천국제영화제작위원회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
판타스틱오피스 (부천시청 별관)
전화 032-327-6313
씨네21 데일리사무실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 3층
어울마당 데일리 사무국
씨네21 주최회사 www.cine21.com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41길11
SK V1센터 E동 1102호
전화 02-6377-0500
팩스 02-6377-0505

〈씨네21〉 정기구독문의 02-2013-1300



PHOTO NEWS

부천시청 어울마당에서 열린 BIFAN 특별상영작 <옥자> GV에 봉준호 감독과 배우 변희봉, 안서현이 참석해 '스크린에서' 영화를 관람한 관객들과 함께 궁금했던 영화 뒷이야기를 나눴다. 사진 백중현



'한국영화 정책 포럼'이 판타스틱큐브에서 열렸다.

영진위,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으로 진통을 겪은 영화계도 희망을 기대할 수 있을까.

7월19일 오후 4시30분부터 부천시청 판타스틱큐브에서는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한국영화 정책 포럼'이 열렸다. 사회를 맡은 미디어액트 김영준 소장은 "과거를 돌아보고 진단하는 것이 앞날을 모색하는 것만큼 중요하다"며 토론회의 시작을 열었다.

한국독립영화협회 고영재 이사장은 "'민간주도'의 영화진흥위원회는 여전히 유효한가?"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다. 고영재 이사장은 "방만하게 기금을 운영하는 현 영진위의 필요성 자체에 회의를 느끼는 영화인들도 있지만,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영진위는 유지하되 영화인들이 느끼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질적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대학교 김지현 전임연구원은 지난 9년 간 영진위의 정책과 사업을 평가한 후 앞으로 정책 수립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안했다. "그간 백화점식 나열에 가까웠던 영진위의 사업구조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산업 진흥 중심의 사업을 문화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미디어액트 장은경 사무국장은 "협치의 의미를 강조한 행정용어인 '거버넌스'가 영진위의 앞날을 이야기할 때 도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글 임수연 · 사진 백중현



<옥자> GV에 참석한 봉준호 감독, 배우 변희봉, 안서현

"비극적인 결말은 생각해본 적 없다"

BIFAN의 특별상영작 <옥자>의 상영 후 GV가 열렸다. 19일(수) 오후7시 부천시청 어울마당 상영관에서 열린 관객과의 대화에는 봉준호 감독과 배우 변희봉, 안서현이 함께 참석해 영화 촬영 전반에 관한 짧지만 밀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극중 미자(안서현)가 옥자에게 남긴 귓속말에 관한 질문에 안서현은 "촬영장에서도 모두가 궁금했던 질문"이라면서 두 번의 귓속말 중 숲 속에서는 "좋아하는 노래가사를 중얼거렸고, 뉴욕 행사 무대 위에서는 관참아, 금방 돌아갈 거야, 라고 다독였다."면서 촬영장의 숨은 비밀을 밝혔다. 배우 변희봉에게는 연기에 관한 질문과 극중 희봉의 선택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이 이어졌는데 그는 연기할 때 깊이 고민하지 않았다면서 "연기를 잘했으면 내 탓, 못 했으면 감독 탓이라 생각하라"며 너스레를 떨었다. 봉준호 감독은 영화의 결말에 대한 의미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다른 결말은 고려하지 않았다. 전세계 동물보호단체가 모두 집결해 도살장의 철창을 끊어버린 다음 수천 마리의 돼지들을 전부 탈출시키는 판타지적인 결말을 상상하긴 했지만 선뜻 마음이 가지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며 완성된 지금의 <옥자>에 관한 애정을 밝혔다. 글 김현수 · 사진 백중현



부천에서 영화도 찍는다

BIFAN과 한국영화감독조합(DGK)이 공동 주최하는 '유비무FAN-멘토스쿨프로젝트'가 20일(목)부터 21(금)까지 양일간 부천콘텐츠센터와 판타스틱큐브에서 열린다. 사전 모집으로 선발된 10팀이 봉만대, 김대현, 김홍익, 백재호, 정승구 감독의 멘토링을 받아 촬영과 편집, 상영까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참가자 10팀에게는 영화촬영을 위한 소정의 진행비와 진행 장비가 제공되며, 기념품 및 수료증을 수여할 예정이다.

VR 운영 마감 시간 한 시간 연장돼

VR 체험존 운영 마감 시간이 기존의 오후7시에서 오후8시로 1시간 연장됐다. 부천시의회 갤러리에서 진행되고 있는 VR 체험존은 7월22일 토요일까지 오전10시부터 오후8시까지, 7월23일은 오전10시부터 오후3시까지 열린다. 단, 7월21일 폐막식 동안은 운영되지 않는다.



BIFAN인

최준영 총무회계팀 안내 데스크 담당

원래 의과대학 학생이라고.

주변에 영화라는 관심사를 공유할 만한 친구가 없다.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지원했다.

맡은 일을 간단하게 소개해 달라.

그날의 상영 일정이나 셔틀버스 이용법 등 영화제의 전반적인 정보를 파악해 관객들에게 알려준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일이다.

특별전에 초청된 전도연의 영화를 보기 위해 멀리 다른 지역에서 오신 나이 드신 어른들을 봤는데, 영화제의 힘이 느껴지더라. 별 이유 없이 그냥 말을 걸어서 20분 동안 본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분도 있더라.(웃음)

자원 활동가의 매력은.

원래 관객으로 영화제에 가는 것을 좋아했다. 그렇게 좋아하던 영화제가 돌아가는 과정을 자세히 알 수 있어서 영화제 있는 동안 내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다.

글 임수연 · 사진 백중현

... 말. 말. 말.

"옥자가 실은 나를 모델로 했다는 루머가 있다."

→ <옥자> GV에서 봉준호 감독, 옥자의 외모와 덩치를 지적하는 질문에 "푸짐하면서도 사랑스러운 캐릭터를 표현하고 싶었다"고 답하면서.

"지금 이 시대의 배우들은 세계 어디서나 똑같이 힘들다."

→ <왕이 된 남자> GV에서 주연배우 로드리고 리스보아, 칠레의 배우도 한국의 무명 배우들처럼 생계유지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질문에.

"제2의 <블레이드 러너>는 필요 없다."

→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4 GV에서 <부기스>를 연출한 산자이 사르마 감독,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창의적인 SF영화를 만들기 위해 늘 매진한다며.



“5분이나 7분마다 반전을 주려고 했다”

〈68 킬〉 트렌트 하가 감독

로이드 카우프먼이 이끌었던 미국 독립영화 스튜디오 ‘트로마’의 후예답게 〈68 킬〉은 폭력과 섹스 그리고 유머가 난무하는 골 때리는 영화다. 지질한 남자 칩과 어디로 튈지 모르는 강인한 여성 라이자, 두 연인은 라이자의 ‘슈가대디’ (성관계 대가로 많은 선물과 돈을 주는 돈 많은 중년 남자)의 돈을 몰래 훔치기로 한다. 하지만 라이자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바람에 둘의 계획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른다. 트렌트 하가 감독은 발랄하고 유쾌한 자신의 영화와 썩 빼닮은 남자였다.

이야기는 어떻게 구상하게 됐나.

평소 소설을 즐겨 읽는다. 브라이언 스미스 작가의 동명소설을 읽었는데 섹시하고, 폭력적이며, 유머러스까지했다. 영화로 만들면 재미있겠다 싶어 판권을 덜컥 구매했다.

칩과 라이자, 두 남녀 캐릭터를 각각 연기한 매튜 그레이 구블러와 애너린 맥코드는 어떻게 캐스팅했나.

칩은 ‘나쁜 짓을 해도 왠지 모르게 끌려’ 같은 느낌을 주는 배우가 많아주었으면 했다. 미드 〈크리미널 마인드〉를 좋아하는데 그 드라마에서 닥터 리드스펜서를 연기했던 매튜가 딱이었다. 라이자는 섬세하면서도 강인한 여성인데, 애너린이 라이자처럼 트레일러에서 생활해 본 적 있어 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스토리가 워낙 예측 불가능해 매력적인데.

많은 관객들이 익숙한 서사 전개를 선호하지 않나. 이 영화의 경우 그걸 깨고 5~7분에 한 번씩 반전을 주려고 고민을 많이 했다.

칩이라는 지질한 남자의 성장스토리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의도치 않은 일에 휘말렸다가 센 여성들을 만나 이리저리 차이면서 세상이 녹록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말이다.

바로 그거다. 여성이 남성으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걸 보면 정말 참을 수 없고, 빨리 그 남성에게서 벗어났으면 하는 마음이 크다. 역으로 칩을 세고 강인한 여성들에게 당하는 남성으로 설정한 것이다. 개인적으로 센 여성과 결혼해 27년 동안 함께 살고 있다. (웃음)

스승 로이드 카우프먼과는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됐나.

그가 〈엠펙 영화 공장〉(1999)에 출연할 엑스트라를 찾겠다는 공고를 신문에서 보고 연락을 했다. 아주 작은 역할에서 시작했는데 영화를 찍다보니 큰 역할이 되어있었다. 연기만 집중하고 싶어 하는 배우들이 많지만 나는 필름메이커가 되고 싶었다. 촬영이 끝난 뒤 스태프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유심히 관찰했다. 연출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할리우드에서 어린 시절 광부 아버지 밑에서 트레일러 생활을 하며 자란 내게 로이드 카우프먼은 좋은 멘토였다.

글 김성훈 · 사진 백중현



“가족애라는 만국 공통의 감정을 담았다”

〈옛 스테이크〉 크리스토 다마르 알람 감독

크리스토 다마르 알람 감독의 〈옛 스테이크〉는 감정 표현에 인색한 남자들의 가족애를 담았다. 아내가 죽은 후 생계를 꾸리던 아버지가 쓰러지자, 네 아들이 병원비를 구하기 위해 도둑질을 시도한다. 무뎠지만 책임감 강한 아버지와, 철부지 같지만 속 깊은 아들. 인도네시아 이야기지만 한국 관객의 공감을 얻기에도 익숙한 설정이다. “이들의 애정 표현은 조용하다. 아버지가 외출 전에 꼭 아들의 방을 들여다보거나, 아들이 아버지의 것과 비슷한 문신을 조용히 팔에 새기는 식이다.” 평범해지기 쉬운 가족 영화를 색다르게 보이게 하는 것은 자국 인도네시아의 정취다. “꾸밈없는 모습을 담으려고 했다. 복싱 경기가 벌어지는 곳을 제외하면 모두 실제 장소다.” 이에 더해 진짜 형제라고 해도 믿을 만한 네 아들의 케미스트리가 훌륭하다. “아버지 역의 배우를 먼저 캐스팅하고, 그와 닮은 배우들을 뽑았다. 그래서 둘째, 넷째 역할을 맡은 배우들은 신인이지만 캐스팅했다.” 알람 감독은 영화를 만들면서 부쩍 자신의 가족을 떠올렸다고 했다. 한 가정의 아들이었던 그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며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다. “어렸을 때라면 막 나가는 첫째에게 공감했겠지만, 지금은 영화 속 아버지와 제일 닮은 것 같다. 아이를 키우며 느낀 감정이 영화에도 고스란히 담겼다.”

글 객민해 객원기자 · 사진 박광희 객원기자

“공포심을 사실적으로 전달하려 했다”

〈누명〉 아르파드 소프시츠 감독

〈누명〉은 50~60년대 헝가리의 작은 마을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살인 사건을 소재로 한다. 유력한 용의자가 감옥에 갇힌 후에도 여성들이 희생당하는 일이 끊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범인을 오인하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은 이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아르파드 소프시츠 감독은 “사람이 겪는 여러 상황이나 감정에 관심이 많다. 특히 다른 사람에게 공격을 받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를 다뤄보고 싶었다”며 이 사건에 이끌린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헝가리에서 검·경찰 시스템이 자리잡아가던 시기였기 때문에 수사를 둘러싼 다양한 갈등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도 이유가 됐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만큼 사건의 사실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 감독은 같은 이유로 강간 장면을 보기 힘든 수위로 촬영하기도 했다. “모든 관객이 그 장면을 보고 실제 공포심을 느끼기를 바랐다. 그렇게 해야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1952년생, 30년 가까이 영화를 만들어온 아르파드 감독은 현재 대학원에서 영화를 가르치고 있다. 그 때문이라도 일주일에 2~3편이상의 영화를 보고 있다는 감독은 여전히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며 진화 중이다. “중종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조는 모습을 보게 된다. 실상 예술영화라고 해도 영화가 지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됐다.(웃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소재는 선택하고 싶지 않다. 단순한 스토리도 싫다.” 글 임수연 · 사진 백중현



도쿄 구울

Tokyo Ghoul

하기와라 켄타로 | 일본 | 2017년 | 118분
월드 판타스틱 레드

7.20 HYU5 17:00
7.23 CH 20:00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가 있다는 상상에서 비롯되는 이야기. 인간을 잡아먹으며 사는 존재 '구울'이 인간 세계에 숨어들어 살고 있는 도쿄. 구울들은 평상시에는 인간의 형상을 하며 살다가 배고픔을 느끼면 어두운 뒷골목으로 사람을 끌고 들어가 식사를 하는데 구울에 의해 살해당하는 사람들의 소식이 마치 교통사고 뉴스처럼 아무렇지 않게 다뤄 지곤 한다. 도쿄 20번가에 사는 소심하고 책임기를 좋아하는 대학생 카네키(쿠보타 마사타카)는 친구와 함께 '안테이크'라는 단골 찻집을 찾았다가 마음에 쏙 드는 여학생 리제(아오이 유우)를 만난다. 하지만 리제는 식사를 위해 카네키에게 접근한 구울이다. 그 날 밤, 둘 사이의 운명이 뒤바뀌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리제가 카네키의 목숨을 끊으려다가 오히려 자신이 사고를 당하고 만다. 장기가 훼손된 채 죽기 직전에 발견된 카네키는 의사

들의 도움으로 리제의 장기를 이식 받아 죽음을 면하는데 이 때문에 그는 인간도 구울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린다. 이후 카네키는 '안테이크'의 정체와 더불어 구울로 살아가는 법을 알게 되지만 정부 주도로 구울 퇴치를 위해 창설한 비밀 집단이 카네키를 비롯한 다른 구울들에게 전면전을 선포한다.

〈도쿄 구울〉은 만화가 이시다 스이의 동명의 인기 연재만화가 원작으로, 이미 애니메이션을 비롯, 연극으로도 제작되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이다. 영화는 원작 만화의 초반 몇 권 분량을 간단하게 압축한 다음, 액션을 보여줄 수 있는 에피소드 위주로 이야기를 재구성했다. 때문에 구울과 정부 주도의 퇴치기관 'CCG(Commission of Counter Ghoul)'와의 대립관계 등이 충분히 설명되지 못한다. 식인종이 주인공인 이야기에 어떤 관객이 감정이입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싶지만, 영화는 기이하고 흥측한 구울들이 펼치는 다양한 액션의 스펙터클에 초점을 맞춰 혐오감을 불러일으킬만한 묘사를 최대한 자제했다. 그럼에도 원작 자체의 수위가 잔인하기 때문에 CG로 표현한 구울들의 그로테스크한 이미지는 과수 영화 팬들을 만족시킬만하다. 김현수

■ 누구도 응원할 수 없는 난감하고 잔혹한 혈투.



엣 스테이크

At Stake

크리스토 다마르 알람 | 인도네시아 | 2017년
106분 | 월드 판타스틱 블루

7.20 14:00 BST2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와 함께 사는 네 형제가 있다. 가정 에 대한 책임감은 강하나, 감정 표현에 서툰 아버지는 군인 처럼 집안을 호령한다. 막내 이칼은 유일하게 아버지의 기대를 받지만, 나머지 삼형제는 불량아로 명성이 자자하다. 그러나 경비 일을 하며 가정을 꾸린 아버지가 쓰러지자, 철부지 세 아들이 병원비 마련을 위해 의기투합한다. 몇 차례의 소소한 도둑질이 실패로 돌아가고, 이들은 마침내 은행을 털기로 결심한다. 영화는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아버지의 인터뷰 사이에 네 아들의 고군분투가 담긴 액자 형식을 취한다. 어떻게든 아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아버지와, 그를 살리기 위해 범죄라도 불사하는 아들의 끈끈한 가족애가 애잔하다. 감독은 각자의 개성을 지닌 네 아들 캐릭터와 부자간의 세심한 감정선을 잘 조율해냈다. 첫 연출작임에도 안정적인 구성이 돋보인다. 객민해 객원기자



데스 콜

Don't Hang Up

알렉시스 바이스브레트, 데미안 메이스 | 미국 | 2016 | 83분
월드 판타스틱 레드

7.21 BST1 17:00

고등학교 생(그레그 설킨)과 브래디(그렛 클레이튼), 모슬리(잭 브렛 앤더슨)는 무작위로 장난 전화를 걸어 상대방이 당황해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은 다음, 인터넷에 공개하는 한심한 짓으로 시간을 허비한다. 이들은 엉뚱한 피자 주문을 시키는 정도를 넘어 가상의 폭력사건을 연출해 사람들을 위협하는 등 장난 수위가 점점 심해진다. 그러던 어느 날, 생과 브래디가 자신들에게 걸려온 장난 전화를 무시코 끊어버린다. 그때부터 집 안에 갇혀버린 두 사람은 자신들이 하던 장난 전화 방식과 똑같은 방법으로 협박을 당한다. 철없는 10대들의 장난 전화라는 설정에서 시작하는 〈데스 콜〉은 밀폐된 공간, 보이지 않는 위협, 아둔한 캐릭터의 최후 등 장르영화가 요구하는 전형적인 규칙을 차근차근 이행하면서 흘러간다. SNS의 사회적 폐해와 여름 공포영화의 공식을 접목했지만 새로운 시도보다는 전통적인 장르 규칙에 더 치중했다. 김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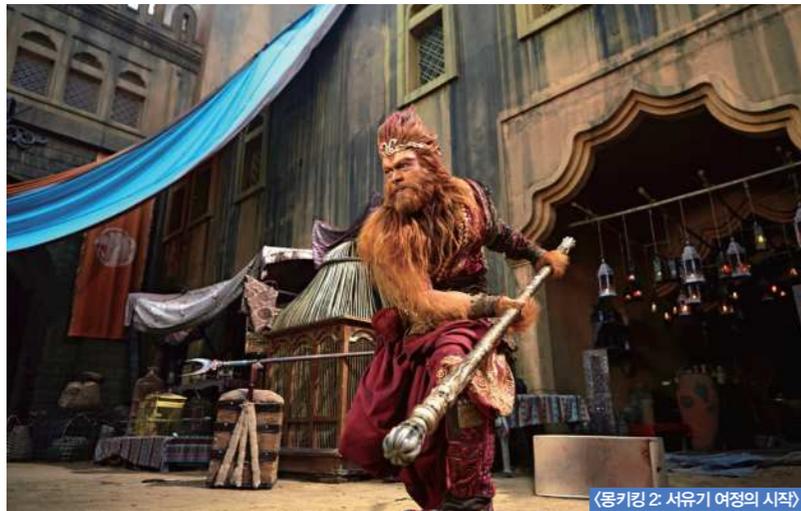
공범자들

Criminal Conspiracy

최승호 | 한국 | 2017년 | 110분 | 코리안 판타스틱 : 장편

7.23 BST2 20:00

〈공범자들〉은 전작 〈자백〉(2016)에서 누가 한국사회에서 간첩을 만드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던 최승호 〈뉴스타파〉 PD의 신작이다. 지난 9년 간 '이명박근혜' 정권은 경찰, 검찰, 감사원 등 사정기관을 동원해 공영방송을 철저하게 망가뜨리며 방송을 장악했다. 또, 〈PD 수첩〉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춘근, 김보솔 PD가 검찰에 체포됐다. 〈공범자들〉은 KBS, MBC, YTN 등 공영방송이 지난 정권에서 어떻게 망가졌는지를 다루며, 해직 언론인들이 지금까지도 정권의 언론탄압에 맞서는 과정을 보여준다. 〈자백〉이 그랬듯이 공영방송을 망가뜨린 '공범자'들을 찾아가 던지는 최승호 PD의 질문은 묵직하다. 탐사 저널리즘 다큐멘터리로서 〈공범자들〉은 당시 언론탄압 과정을 기록한 영상과 당시를 회상하는 해직언론인들의 인터뷰를 교차로 보여주며 우리가 공영방송 정상화를 계속 관심을 지켜봐야 할 문제임을 강조한다. 김성훈



〈몽키킹 2: 서유기 여정의 시작〉

아시아 영화의 뜨거운 온도

BIFAN 특별전 '베스트 오브 아시아'를 통해 보는 아시아 흥행작



〈마이 스투피드 보스〉



〈농담재즈 4G〉



〈왓츠 위드 러브 2〉



〈카페 6〉

송효정 영화평론가

아시아 영화의 현재에 관심이 있다면 '베스트 오브 아시아' 섹션에 주목하자. 아시아 주류영화를 조망할 수 있도록 아시아의 2016년 흥행영화의 전반적 취향과 추세를 반영한 섹션이다. 연상호 감독의 〈부산행〉(2016),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너의 이름은〉(2016), 주성치 감독의 〈미인어〉(2016)를 비롯해 한국, 중국, 홍콩, 대만, 일본, 태국,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10개국의 주류영화가 선별되어 소개된다. 한국에서 선보이는 〈부산행〉과 〈밀정〉(2016)은 상업영화의 보임새에 장르적 컨벤션을 결합시키되 한국사회 특유의 공동체적 에토스를 담아낸 작품이다. 여타의 아시아 영화에 비해 한국 주류영화에는 장르적 코드에 사회적 상상력이 강하게 투영되어 있다. 일본 흥행작 〈너의 이름은〉과 안노 히데아키 감독의 〈신 고질라〉(2016)는 동시대 일본에 대한 메타포와 같은 작품들이다. 3.11 동일본 대지진의 트라우마를 반영하되, 〈너의 이름은〉이 감성적 판타지로 접근했다면 〈신 고질라〉는 정치적 냉소를 서브컬처 장르에 묘하게 결합시켰다.

중국의 〈몽키킹 2: 서유기 여정의 시작〉(2016, 소이청 감독)은 화려한 그래픽에 동양적 해학을 곁들인 판타지 액션이다. 과잉되고 다소 작위적이었던 전작 〈몽키킹: 손오공의 탄생〉(2014)에 비해 CG가 한결 자연스러워졌음이 확인된다. 그동안 할리우드 판타지에 비해 대륙의 판타지는 조악해 보였던 게 사실이다. 기술적 보안을 통해 앞으로 중국의 대작영화가 시대극에서 동양적 판타지로 영역을 과감히 넓혀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주성치의 코미디 〈미인어〉는 천진난만하면서 괴이한 친환경 코미디다. 지수성기한 부동산 재벌과 암살자 인어의 황당무계 로맨스에 환경파괴 문제까지 담아냈다. 클라이맥스에서 인간의 탐욕과 인어의 생존권이 충돌하는 장면의 심리적 잔혹성은 봉준호 감독의 〈옥자〉(2017)와 비교해 볼만도 하겠다. 한편 작년 홍콩 최고의 히트작 〈코드네임: 콜드 워〉(2016, 령록만, 썬니 렉 감독)는 홍콩액션의 명맥을 확인시켜 주는 작품이다.

곽부성과 양가휘가 투톱의 맞수로 나섰고 평위엔과 같은 신예가 열연을 펼쳤다. 홍콩 경찰 내부의 암투를 테러진압 과정과 맞물려 살펴보는 작품으로, 정치현실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홍콩영화의 무의식이 읽히는 작품이기도 하다.

멜로드라마는 담백하게

대만의 〈카페 6〉(2016, 오자운 감독)는 '응답하라' 시리즈를 연상시키는 복고풍 로맨틱 코미디다. 블랙커피를 좋아하지 않는 커피숍 주인이, 장거리 연애로 괴로워하는 여성에게 자신의 과거사를 들려준다. 영화는 20여 년 전으로 돌아가 알곳은 고3 생활과 두근대는 연애담을 아가자기하게 펼쳐낸다. 정해지지 않은 미래의 불확실함에 두려워하던 시절을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2011) 마냥 마카롱풍 달콤한 화면에 담았다. 설레던 첫사랑과 두 소년의 가슴 찡한 우정은 예측불허의 반전으로 이어진다. 작년 대만 흥행 2위를 차지한 작품이다.

담담한 멜로드라마 〈왓츠 위드 러브 2〉(2016, 리리 리자 감독)는 2001년 인도네시아에서 큰 흥행을 거둔 〈친타에게 무슨 일이?〉의 후일담을 다룬 2016년 흥행 2위작이다. 특히 2001년 작과 같은 배우가 출연하여 극적 몰입도를 높였다. 17살 시절, 랭가는 사랑하는 소녀 친타를 알 수 없는 이유로 떠났다. 이제 30대 초반이 된 친타는 곧 있을 결혼을 앞두고 여자 친구들과 함께 고향인 요가카르타 지방으로 여행을 떠난다. 친타는 뉴욕에서 생활하다 그곳에 들른 랭가를 우연히 만나게 되고, 이들은 하룻밤 짧은 여행을 하며 미안하고 섭섭했던 마음을 나눈다. 영화의 전반적 정서는 담백하고 소소하여 과잉이 없다. 30살 전후 인생의 과도기를 통과하는 친타와 세 친구들 사이의 우연토크도 꽤나 인상적이다.

코미디는 버라이어티하게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에서 코미디는 확실히 뚜렷한 강세를 보이는 장르다. 작년 태국 최고의 흥행작 〈농담재즈 4G〉(2016, 이논 밍판타 감독)는 힙스터 승려의 좌충우돌 수행기를 다룬 코미디다. 문신에 피어싱 자국이 뚜렷한 주인공 재즈는 방탕했던 연애사에서 탈출할 요량으로 불교에 귀의한다. 외딴 사원에서 수행하던 중 수련을 위해 방콕의 큰 절로 가면서 이야기는 보다 버라이어티 해진다. 재즈와 그를 따르는 두 명의 청년 불자들은 세속의 성욕과 물욕을 비워버리지 못한 채다. 얼굴 표정 변화나 슬랩스틱 없이도 상황 설정과 캐릭터의 독특함으로 황당한 재미를 자아낸다. 불교를 소재로 했지만, 종교와 세속이 분리되지 않은 태국사회이기에 섹스유머와 화장실유머도 자연스럽게 뒤섞였다. 주연 배우인 재즈 추안추엔은 태국의 배우이자 실제 힙스터 뮤지션이다.

필리핀의 〈수퍼 부모 보호자〉(2016, 조이스 베르날 감독)는 마이너리티 감성으로 필리핀 흥행 1위를 한 작품이기에 주목을 끈다. 주인공 아키는 개성적인 옷차림을 즐기며 소셜 미디어 셀럽을 꿈꾸는 게이이다. 우연히 옛 친구인 싱글맘 사ارا를 만나지만, 그녀는 두 아이를 남기고 의문의 연쇄살인집단에 의해 살해된다. 두 아이의 대부였던 아키는 갈 곳 잃은 아이들을 맡아 키우게 된다. 덩달아 스텐트맨인 사라의 남동생 파코도 자신의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된 형편이다. 〈수퍼 부모 보호자〉는 주책없는 게이 캐릭터에 기반을 둔 코미디다. 여기에 사라의 살인범과 아이들의 아버지를 찾는 미스터리를 섞어내다가 엔딩에 이르면 완전한 판타지에 이르는 등 예측 불허의 흥성모방 잡종 장르로 끝을 맺는다. 클라이맥스에 자세히 살펴보면 〈부산행〉에 대한 B급 감성의 오마주가 등장하는 등 한류의 영향도 곳곳에서 발견된다. 〈마이 스투피드 보스〉(2016, 우피 아비안토 감독)는 장-피에르 주네 감독의 시각적 스타일을 연상시키는 스타일리시한 복고풍 코미디로 놓치지 아쉬운 인도네시아 작품이다. 완고한 끈대 보스의 비서가 된 다이아나와 사장에게서 고통 받는 직원들의 일상을 담아내되 따뜻한 서민적 감성을 잃지 않는다.

아시아의 젊은 여성감독에 주목하라

전반적으로 살펴본 올해의 아시아 메이저영화들에서는 고유한 아시아적 날인을 지닌 호러나 액션보다 경제와 문화의 불황기에 빈번히 소환되는 대중 친화적 장르인 멜로드라마와 코미디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 국민의 감성과 시대인식에 조응하며 공감하는 작품들이 작품성과 흥행에서 모두 성공을 거두었다. 미디어, 예술, 문화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던 동남아시아 젊은 여성감독의 약진도 사뭇 인상적이다. 〈수퍼 부모 보호자〉(필리핀)의 감독 조이스 베르날은 영화편집자로 시작, 필리핀 판 〈별에서 온 그대〉 등 TV드라마로 왕성하게 활동하는 인기 연출가다. 〈마이 스투피드 보스〉(인도네시아)의 우피 아비안토는 각본가, 감독, 제작자를 겸비하는 젊은 작가감독이다. 시대극 〈천하대장 왕좌의 전쟁〉(베트남)은 가수, 모델, 감독, 배우로 왕성하게 활동하는 응오 탄 반의 첫 번째 연출작으로 2017년 베트남 흥행 1위를 차지한 영화다. 공감 가능한 서사적 코드에 대한 직관력, 시각적 스타일에 대한 견고한 입장, 장르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아시아의 젊은 여성 감독의 수퍼 파워가 앞으로도 지속될지 눈여겨 볼만하다.



Alex De la Iglesia.



Jeon Do-yeon.

©BAEK JONG HEON

©BAEK JONG HEON

In Good Company

The Bucehon International Fantastic Film Festival Honors Actress Jeon Do-yeon and Director Alex De la Iglesia

The Bucehon International Fantastic Film Festival Honors Actress Jeon Do-yeon and Director Alex De la Iglesia

In addition to workshops, events, and the hundreds of films that will be screened at this year's Bucehon International Fantastic Film Festival, two filmmakers were also honored with their own special focus sections: Korean actress Jeon Do-yeon and Spanish director Alex De la Iglesia.

JEON Do-yeon is a Korean actress with a storied career spanning 20 years. Now one of Korea's most revered actresses, Jeon's first film Contact was screened at BIFAN (then known as PIFAN) 20 years ago at the festival's first edition in 1997. To honor this memory, Jeon's retrospective is also titled "Contact", and features 17 movies from the actress's filmography. In addition, at the screening for Director LEE Chang-Dong's Secret Sunshine, a film for which she received the "Best Actress" award at the 2007 Cannes International

Film Festival, Jeon was on hand to participate in a "Megatalk" where she answered questions from a large audience of eager fans. This guest visit, held at the large theater in Bucehon City Hall was moderated by reporter KIM Haeri and also attended by director LEE. The "popular auteur", cult director Alex De La Iglesia was also honored with a special focus section that featured 9 of his films. The Spanish filmmaker, who like Jeon Do-yeon also began his career in the 90s, has gone on to become a legend. Also a screenwriter, producer and former comic book artist, Mr. De la Iglesia is known for his imaginative directing style and dark sense of humor. Mr. De la Iglesia was on hand for several guest visits for his films. The Bucehon International Fantastic Film Festival also awarded Mr. De la Iglesia with a lifetime achievement award. The energetic director told people in attendance "When you meet someone who is fan of genre films, you automatically have a new friend. Genre films unite us all! Alex De la Iglesia is no stranger to winning awards. Since debuting in 1993 with the film Mutant Action (Spanish title: Acci?n Mutante) Mr. De la Iglesia has racked up many Goya Awards (the Spanish equivalent of The Oscars).

In addition to screenings guest visits, and awards, Jeon Do-yeon and Alex De la Iglesia were also honored with a special, commemorative book that was published by BIFAN.

Christopher Weatherspoon

The Night of the Virgin

Roberto SAN SEBASTIAN | Spain | 2016 | 117min

It is New Years Eve and Nico (Javier B?dalo), an awkward young man "lacking social abilities" is at a party looking to get laid. After several failures, Nico notices that he has caught the eye of the much older Medea (Miriam Martin), but age doesn't matter to Nico because he's a virgin and he only has one goal on his mind. Nico leaves with Medea to go to her apartment, a place so unforgettably disgusting it's uncomfortable to see. Littered with trash and crawling with cockroaches Nico knows something is odd, but again, he came to do a job. It isn't until Nico comes across some of Medea's sexual ritual artifacts that he begins to realize he may have gone home with the wrong woman and the night goes from bad to worse when Medea's jealous, crazy boyfriend Spider (Victor Amilibia) shows up, trapping Nico inside the apartment. Still, Nico is destined to shed his virginity, unaware that the act might have bloody, unholy consequences.

Spanish director Roberto San Sebastian's first feature film, comedy-horror *The Night of the Virgin* is a gruesome, filthy, blood splattered ball of crazy that could have easily fallen apart. The director and the films's three lead actors do a great job in keeping things bonkers without letting the movie go completely off the rails. *The Night of the Virgin* is constantly pushing boundaries with shock and vulgarity, but none of it feels pointless or done in vain. Featuring an extreme "biological moment" that viewers will not be able to unsee, the film's twists and turns keep the audience engaged and the plot interesting. Selected as a part of BIFAN's Forbidden Zone section, *The Night of the Virgin*, will also be shown at the festival's final midnight screen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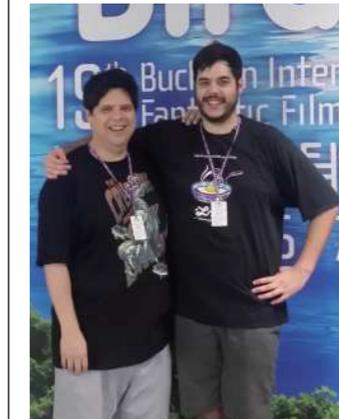
Christopher Weatherspoon



(The Night of the Virgin)

Like Father Like Son

Cohen and Joseph Perry,
A father and son genre film review team



How long have you been attending BIFAN?

JOSEPH As a fan since 2008, the first year I moved to Korea, and as a press member in 2011.

COHEN I believe this is my fifth BIFAN. My first one was in 2010.

How long have you been doing reviews as a father/son team?

COHEN For as long as I have been coming to BIFAN!

What are some of the publications and blogs to which you contribute?

COHEN I contribute film reviews to Phantom of the Movies' VideoScope magazine (videoscopemag.com) with my father, and I have written individually for Propeller Magazine (propellermag.com).

JOSEPH Please check out tastethemilkofchocola.blogspot.com for my other writing and podcasting projects.

What do you like about BIFAN?

COHEN It's a unique, equalizing plane where filmmakers, actors, "superfans," and your everyday Joe participate in a shared cinematic experience that goes beyond -the individual. What have been your favorite films so far?

COHEN BIFAN favorites Justin Benson and Aaron Moorhead's *The Endless*. The duo has fashioned an incredibly unique universe together, with a knack for reflecting on the isolating nature of society. My runners up so far would be *Animals*, which reflects the fluidity of reality and reminded me of Polanski's *The Tenant*, and *Bloodlands*, a brutal Albanian horror film that plays on our conceptions of modernity and our ties to the past.

JOSEPH Like son, like father . . . I echo Cohen's choices and sentiments!

Anything else you want to add?

COHEN Thank you to all of the wonderful people who work to put this together, with extra thanks to the Foreign Press staff. We feel truly privileged to be in attendance.

Christopher Weatherspoon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17:00	18:00	19:00	20:00	21:00	22:00
CH		701 11:00 바람의 색 Colors of Wind 119min / ㉔			712 14:00 화이트 킹 The White King 89min / ㉔								
FC				13:00 판타스틱 마케팅 펀딩 Fantastic Marketing Funding 120min / Free Admission				724 17:00 선택 The Road Taken 108min / ㉔			738 20:00 이태원 살인사건+세번째 시선... *Where the Truth Lies+If You were Me 3: ... 116min / ㉔		
HYU3		702 11:00 카운트다운 *Countdown 119min / ㉔			713 14:00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9 Fantastic Short Films 9 91min / ㉔			725 17:00 코리아 판타스틱: 단편 1 Korean Fantastic: Shorts 1 90min / ㉔			739 20:00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11 Fantastic Short Films 11 89min / ㉔		
HYU4		703 11:00 나는 내 운명 *You're My Sunshine 121min / ㉔			714 14:00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7 Fantastic Short Films 7 88min / ㉔			726 17:00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8 Fantastic Short Films 8 69min / ㉔			740 20:00 싱크로나이저 Synchronizer 83min / ㉔		
HYU5		704 11:00 랜덤 라이브 Random Lives 107min / ㉔			715 14:00 벗어날 수 없는 The Endless 111min / ㉔			727 17:00 도쿄 구울 Tokyo Ghoul 118min / ㉔			741 20:00 검은 숲 속으로 Into the Forest 103min / ㉔		
HYU6		705 11:00 블랙 할로우 케이지 Black Hollow Cage 105min / ㉔			716 14:00 나는 변태다 Hentaida 76min / ㉔			728 17:00 미인어 The Mermaid 93min / ㉔			742 20:00 어둠 밤 Behind the Dark Night 117min / ㉔		
HYU7		706 11:00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6 Fantastic Short Films 6 80min / ㉔			717 14:00 소울 메이트 Soul Mate 110min / ㉔			729 17:00 아웃도어 비긴즈 Outdoor Begins 92min / ㉔			743 20:00 일급기밀 *The Discloser 95min / ㉔		
BST1		707 11:00 열혈남고 Fist & Faith 100min / ㉔			718 14:00 미르산 Miruthan 106min / ㉔			730 17:00 건망촌 The Village of No Return 116min / ㉔			744 20:00 Bitch 93min / ㉔		
BST2		708 11:00 걸프롤에스터데이 The Girl from Yesterday 124min / ㉔			719 14:00 옛 스테이크 At Stake 106min / ㉔			731 17:00 코드네임: 콜드워 Cold War 2 110min / ㉔			745 20:00 설녀 Snow Woman 95min / ㉔		
BST3		709 11:00 부천 초이스: 단편 2 Bucheon Choice: Shorts 2 92min / ㉔			720 14:00 코리아 판타스틱: 단편 2 Korean Fantastic: Shorts 2 89min / ㉔			732 17:00 블러드랜드 Bloodlands 79min / ㉔			746 20:00 어쩌다 암살클럽 Kills on Wheels 105min / ㉔		
BST4		710 11:00 펀치 더 클락 Punch the Clock 100min / ㉔			721 14:00 협녀, 칼의 기억 Memories of the Sword 121min / ㉔			733 17:00 프리벤지 Prevenge 88min / ㉔			747 20:00 비혼의 아내 The Unmarried Wife 130min / ㉔		
BST5		711 11:00 47미터 다운 47 Meters Down 87min / ㉔			722 14:00 일로손풍 Godspeed 112min / ㉔			734 17:00 사이코패스 Psychopaths 85min / ㉔			748 20:00 연기의 중력 The Gravity of Acting 96min / ㉔		
SS		752 11:00 슈팅걸스 Shooting Girls 97min / ㉔			723 14:00 스름: 위대한 여정 Storm Letters of Fire 105min / ㉔			735 17:00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3 Fantastic Short Films 3 87min / ㉔			749 20:00 은하철도의 밤 *Night on the Galactic Railroad 108min / ㉔		
SH								736 17:00 토터스의 여행 Journey of the Tortoise 81min / ㉔			750 20:00 잃어버린 형제 The Lost Brother 112min / ㉔		
OA								737 17:00 무뢰한 The Shameless 118min / ㉔			751 20:00 남과 여 A Man and A Woman 115min / ㉔		

[*] 표시가 있는 작품은 영자막 없이 상영됩니다. Films marked with [*] will be screened without English subtitles.

등급 Rates ㉔ 전체 관람가 General ㉕ 12세 이상 관람가 Under 12 not admitted ㉖ 15세 이상 관람가 Under 15 not admitted ㉗ 18세 이상 관람가 Under 18 not admitted ㉘ 청소년 관람 불가 Under 19 not admitted
상영관 Theaters CH 부천시청 어울마당 FC 부천시청 판타스틱큐브 LS 부천시청 전디광장 HYU3 CGV부천 3관 HYU4 CGV부천 4관 HYU5 CGV부천 5관 HYU6 CGV부천 6관 HYU7 CGV부천 7관 BST1 CGV 부천역 1관
BST2 CGV부천역 2관 BST3 CGV부천역 3관 BST4 CGV부천역 4관 BST5 CGV부천역 5관 SS 송내솔아트홀 OA 오정어울마당 오정아트홀 SH 소사어울마당 소향관

성공적인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한 최고의 선택

고객의 성공이 바로 우리의 성공이라는 것을 DHL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전세계 220여 개 국가에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DHL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탁월한 서비스를 통해 여러분의 글로벌 비즈니스를 돕는 최고의 물류 파트너가 되기 위해 국제특송전문가 과정을 수료한 전세계 10만 명의 DHL EXPRESS 직원들이 고객님과 함께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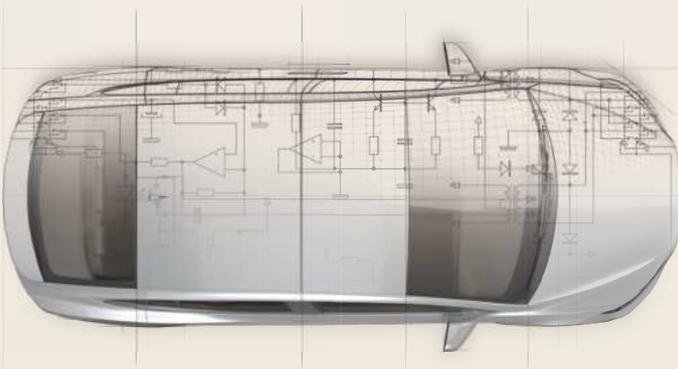
DHL EXPRESS

dhl.co.kr/express



보다 효율적인 혁신이 필요할 때

THINK



ON.

전 세계 전력용 반도체의 선도 기업



We create the products and resources to help make your solution as efficient and reliable as possible. When you are thinking of Energy Efficient Innovations, Think ON.

WWW.ONSEMI.COM

ON Semiconductor[®]

